

월간 주요 이슈

KBS NEWS(2022. 8. 2.)

소비자원 “일부 어린이용 물놀이 기구, 안전기준 미달”

입력 2022.08.02 (12:00)



여름철 많이 사용하는 공기 주입식 물놀이 기구 중 일부 제품이 안전 인증을 받지 않거나, 안전 표시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어린이용 · 성인용 물놀이 기구 2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일부 어린이용 제품에서 이 같은 문제가 발견됐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은 조사 대상 20개 제품 중, 어린이용 2개 제품이 안전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독립 공기실 구조를 갖추지 않거나, 보조 공기실 용적이 부족해 구조적 결함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중 1개 제품은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상태로 유통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물놀이 기구 안전 기준상, 76cm 이상의 제품은 모양에 관계없이 2개 이상의 독립된 공기실이 있어야 하고, 가장 큰 공기실이 파손될 경우를 대비해 적당한 용적의 보조 공기실이 있어야 합니다.

또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절반 이상이 안전기준 표시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린이용 물놀이 기구는 안전기준에 따라 모델명과 사용 연령, 체중 범위 등의 표시 항목과 사용상 주의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하지만 조사대상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15개 중 6개 제품(40%)이 사용 연령, 체중 범위 등을 누락했고, 2개 제품(13.3%)은 한글로 제공해야 하는 표시 사항을 외국어로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자에게 제품의 리콜, 표시 사항 개선 등을 권고할 계획입니다.